

⊕ **엠폭스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** ⊕

•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으면
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즉시 신고

• 방역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

•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단 전까지
동거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 삼가
- 침구, 식기,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
가급적 생활공간 분리

• 가족, 동거인 등 보호를 위해
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및
개인보호구 사용
-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**노출 최소화**
-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, 일회용 장갑 등 착용

• 의심증상자의 **쓰레기 및 침구**는
별도로 분리하여 관리
- 확진 시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
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

• 애완동물을 포함한 **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**

“

질병관리청은
환자 진단·치료와 접촉자 관리 등
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 중이며,

**국내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
24시간 대비하고 있습니다.**

”



엠폭스 예외는 없습니다

⊕ **엠폭스 안내문** 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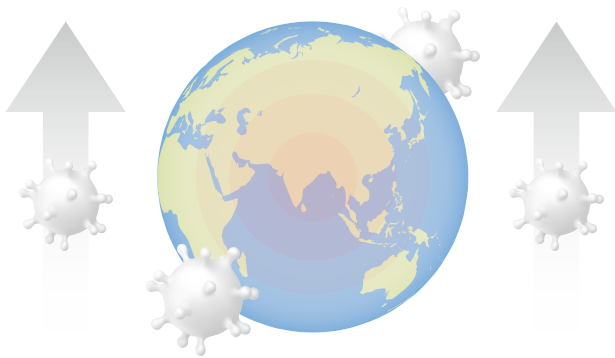


엠폭스 발생현황

- 2023년 4월 18일 기준(WHO) 총 110개국에서 87,039명이 확진되었고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,

2023년 이후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발생은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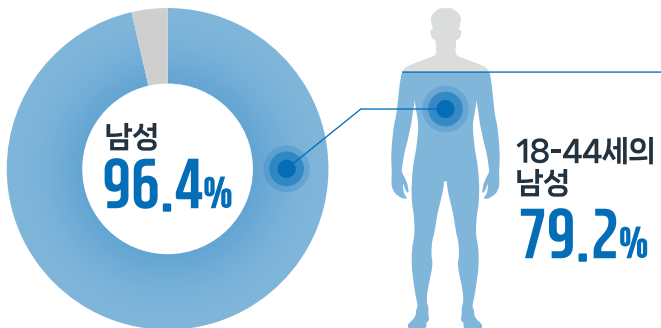
* (일본) 22년 8명 -> 23년 103명 (2월 중순부터 발생 증가)
(대만) 22년 4명 -> 23년 37명



엠폭스 확진환자 주요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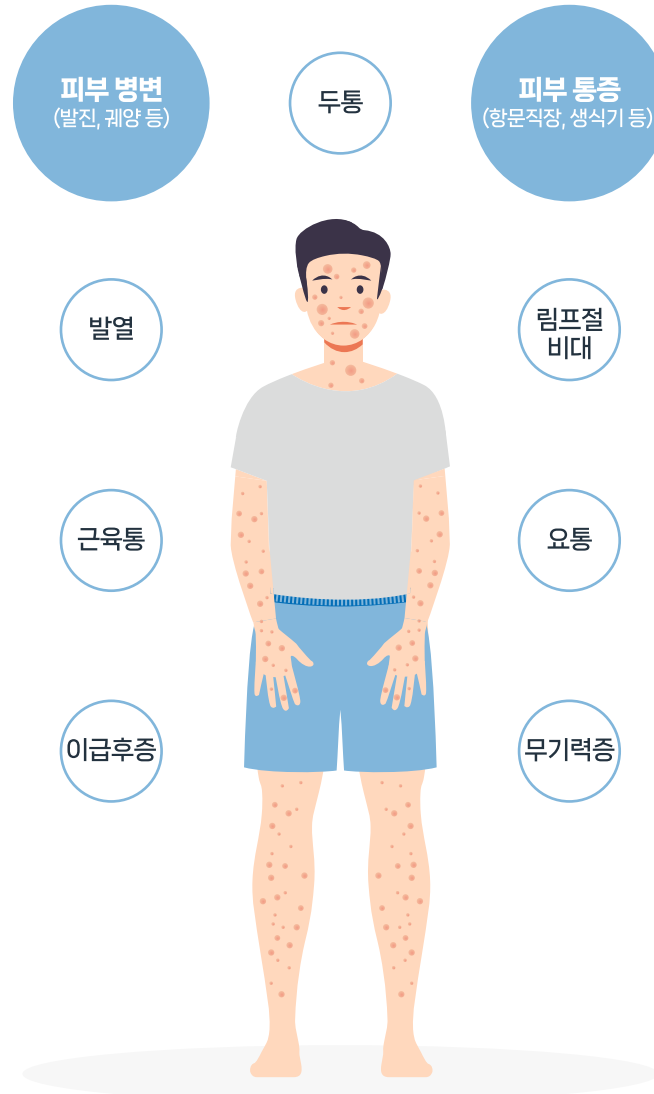
- 국외 엠폭스 확진 환자의 성별은 남성이 96.4%, 그중 18-44세의 남성이 79.2%를 차지

* WHO, '23. 4. 18. 기준



엠폭스 주요증상

- 국내 확진 환자의 주요 증상으로는 항문직장, 생식기, 구강, 결막, 요도 등의 **피부·점막의 병변**(발진이나 궤양 등), **피부 통증**(항문직장, 생식기 등)이 있으며, 발열, 두통, 림프절 비대 등도 나타남



엠폭스 예방수칙

- 손 씻기 철저 및 오염된 손으로 눈, 코,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
-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 (피부접촉, 성접촉 등) 삼가
- 다수의 상대와 밀접접촉 (피부접촉, 성접촉 등) 삼가
-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(발진이나 딱지 등) 접촉 삼가
-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 (침구류, 수건, 의복, 세면대 등) 접촉 삼가